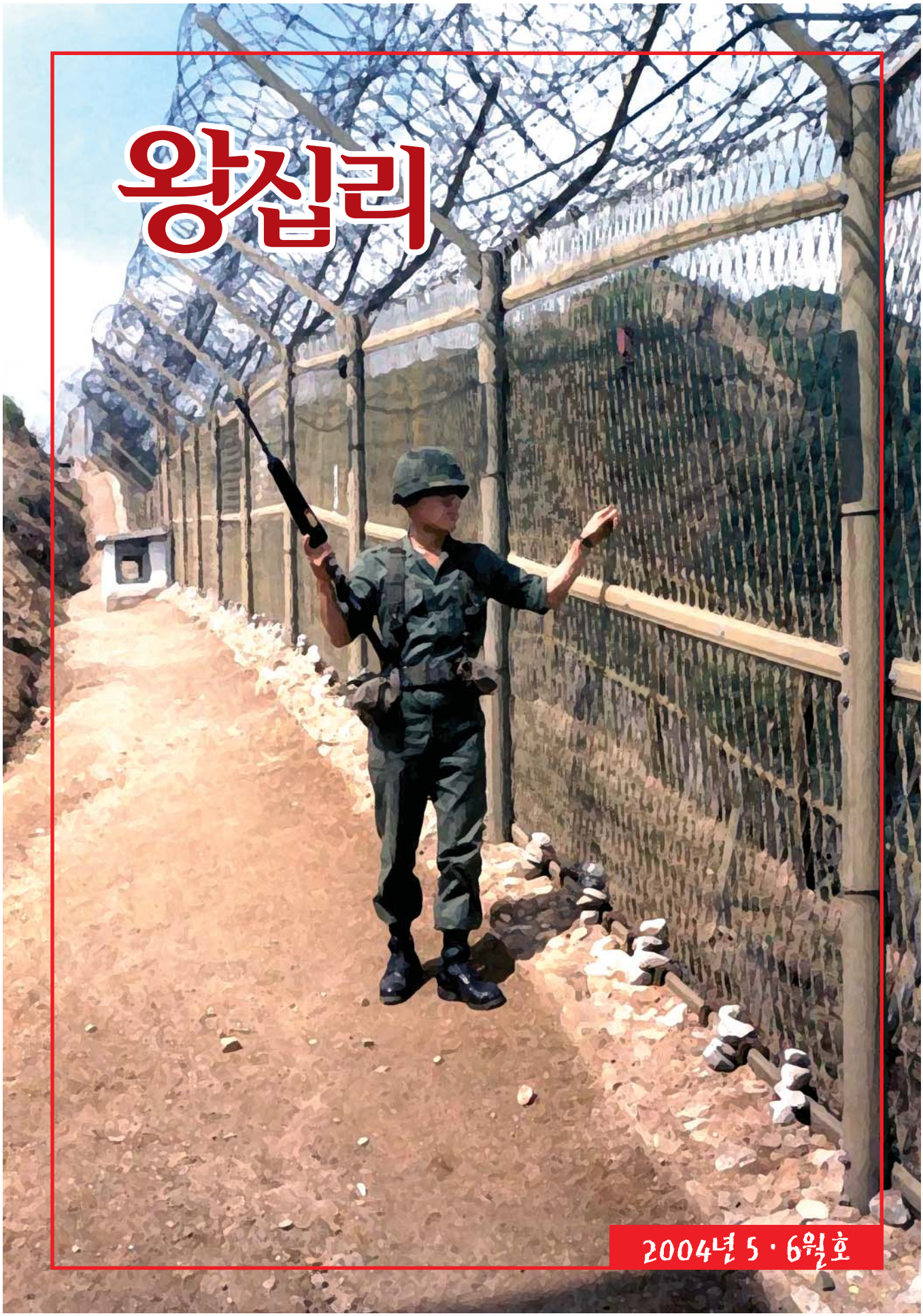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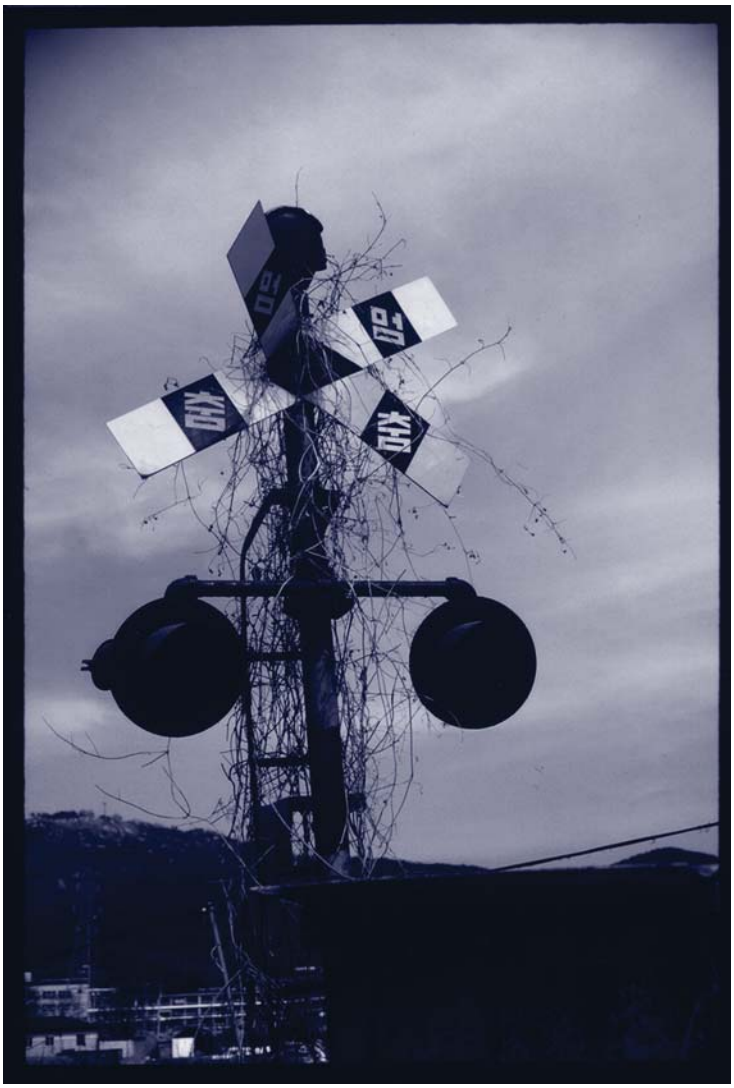


왕십리

2004년 5 · 6월호



멈춤

우린 멈춰서야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때론 멈춰 서는 여유를 갖자.
그리고 나 자신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자.

글 · 사진 / 차주영

목 차 / Contents

목회칼럼 / 20년후에도 - 4

인터뷰 / 바디와 앵초사롤/몽골어예배통역 -5

감사편지 / 2004 부활절 연합예배 장애인초청 감사편지 -7

기획기사 /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 -8

왕십리이모저모 /
2004 부활절 연합예배, 민족화합대성회, 체육대회,
성동구청이전예배, 수도노회 그리기 줄짓기대회 -10

선교편지 / 새로운 선교지에서 -17

독자투고 1 / 때설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18

건강상식 /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의 필요성 -20

가정예배 -21

책 · 음반소개 -26

요리 / 오렌지 닭튀김 -27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의 나이 100살이 되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귀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아버지의 명령대로 힘을 다해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 왔더니 아버지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밧줄로 꽁꽁 묶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짐작하건대 이삭은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부르시고 자기를 낳게 하셨는지 감사의 증언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며 또한 아버지가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 했을 때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였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자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소유한 부모가 몇이 되며,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라기를 소원하며 억지로라도 교회로 끌고 오는 부모는 또 몇이나 될까?

더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부모님의 믿음을 따르는 자녀는 몇이나 될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을 통해서 가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형성됐듯이 우리들의 가족이 모두가 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 드린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우리교회에서 믿음을 키우며 이 땅에서도 번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 드린다.

김재영장로 / 출판위원장

20년 후에도...

어느덧 20년. 홍콩에 해외 선교 및 목회의 첫 발을 내디딘 1984년 8월 21일, 그 이후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 태풍 3호로 인해 학교가 쉬고 있는 때에 비에 젖은 홍콩 카이탁 공항에 가족과 함께 착륙하던 그 날, 감동스럽던 생각이 어제 같은데 20년이 흘러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감동으로 홍콩은 나를 품어 안아주고 있다. 홍콩, 그 신비한 소명감의 향취와 그리움이 솟아오르는 땅. 그 땅에 주님의 전략이 새로운 대부흥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2007년 모리슨의 중국 선교 200주년을 기념하는 때, 한국교회가 대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때와 어찌 그렇게 일치할까.

이제는 백의종군의 마음이다.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이 생각난다. 그가 백의종군한후 단 12척의 배로 적의 연합수군을 상대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명량 해전을 계획하였다. 시속 12키로미터의 물이 돌아흐르는 울돌목, 6시간마다 물길이 바뀌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그의 오직 하나의 가능한 전략이었다. 결국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선 30여척을 파괴하였다. 그 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그 국면이 바뀔 때에도 그는 일본해군의 서해진행을 막기 위해 한산대전을 계획하였고 학익진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순신장군이 나라 경제가 힘든 때에 철을 모으고 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힘, 두 세사람의 힘들을 잘 모아서 주님의 영적인 큰 전쟁에 임할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사탄은 작은 일들 속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떤 명예나 욕심이 앞설 수 없다. 그리고 보니 홍콩교회를 처음 개척할때 입주했었던 건물을 가족과 함께 찾아갔을 때 '온힝다이하'(安慶大廈)라는 옛이름이 선명한 새 건물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던 일을 기억한다. 저기서 시작할 때 큰 꿈을 가졌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모든 것을 비우면서 그러나 모든 것을 새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백의종군하리라. 그리고 기도하리라. 주여, 주님의 일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를 쓰셔서 큰 일을 이루지 않으시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 피곤, 연약함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다. 그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에게 다시 명량대첩은 없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한산도 대첩은 없을까. 이제 우리는 사탄과의 큰 전쟁을 위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2007년을 향해서 진정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오직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 두 세사람, 삼인의 교회, 다윗의 삼십인 두목들, 큰 물결을 이룰 출애굽운동가들이 필요하다. 어느덧 20년이 지난 지금 홍콩에서 시작하던 때와 같이 다시 개척의 마음으로 사탄의 밀려오는 군대 앞에 서야할 것 같다. 그 때에도 결심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었는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새로운 새마음으로 새로운 20년 후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 달의 성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21:15)

:: 인터뷰 / 이수정 기자

멀고도 가까운 나라 몽골 그리고 한국

저는 누구이며...

'몽골'은 광활한 대지가 펼쳐진 끝없는 초원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는 깊고 깊은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그 대지 위를 스쳐간 조상들의 발자국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부를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 주지만, 길이 길이 남길 이름은 고국이 지어 준다'는 몽골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국에서는 누구의 자손으로 불려지지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곳에서는 '몽골'이란 이름이 따라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누구의 딸이라는 것보다 기마민족의 후세이며 몽골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지는 10여년이 되었고, 한국에 가고 싶은 꿈을 품을 지 5년이 채 안되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던 약사 전공을 한국어 전공으로 바꾸어 공부하다가, 저 혼자 낯선 나라인 한국으로 온 때는 1999년 봄이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게 된 것이 한국에서의 제 인생의 첫 출발이 되었고, 한국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 한국의 문화를 연구한지 벌써 다섯 해를 넘기고 여섯 번째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왕몽 가족들 그리고 제가 아는 '그분'

5년 동안의 타국 생활, 누구든지 모국에 대한 애정이 쌓이고 또 그리워지는 그 때.

몽골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가 보고 싶던 차에 마침 동생의 소개로 왕십리교회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며, 베푼다는 마음으로 몽골어예배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역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어려운 일이기에, 제가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 달라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하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만 오히려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더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두 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드리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크게 받으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몽골

우리 몽골인과 너무나 얼굴이 비슷한 한국 사람들.

지구상에 유일하게 몽골족에게만 있는 몽골반점이 나타나는 우리 두 민족.

10년 전에는 한국이라면 북한만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몽골에서 형제국가로서 모든 분야에서 3위 내에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와 급속히 발전하는 자본주의, 시간에 ?기는 일상생활, 그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여유, 점점 더 분주해지는 삶, 파괴되어지는 자연의 모습은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으로, 몽골의 넓은 푸른 초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끼고 사랑해야 할 한국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미래의 몽골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한국과 몽골이 서로 힘을 합쳐 새로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할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민족을 몽골에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일 뿐만 아니라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국학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몽골과 한국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정든 나라 한국, 저는 한국과 몽골을 위해 작은 벽돌들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교회에서 몽골어예배를 시작한지 1주년을 기념하여 통역을 맡고 있는 바디와 엥흐사롤씨를 만났다. 그는 1972년에 태어났고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2기코스를 밟고 있으며, 우리교회에서 설교통역과 몽골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매주 주일 11시에 시작하는 몽골어예배에는 몽골인 20여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감사 편지

○○○ 장로님께 올립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 8~12)

봄을 맞이하여 마음 속에 묻어 두었던 사랑의 꽃, 주님을 향한 믿음의 꽃이 더욱 더 활짝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 모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관광버스를 준비하여 주시고, 친절하고 밝은 표정으로 안내해 주신 왕십리 교회 성도님들, 세심하게 배려 해 주시는 ○○○ 장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저희 가족들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외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족중 한 분인 예쁜씨는 "언니! 너무 좋아, 정말 기쁘다."라고 계속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희 또한 기뻤습니다.
왕십리 교회 ○○○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께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생활을 본받아 실천하는 왕십리 교회의 부흥 발전을 기원하며, 성도님들과 ○○○ 장로님과의 좋은 소식이 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12일
가족 일동

※ 편집자 주 : 2004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담당자가 보내준 감사의 편지입니다.

:: 기획기사 / 조성윤 전도사

대동강변에 뿌린 복음의 씨앗

R.J.토마스 선교사 (상)

나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났다. 캠브리안 산맥이 남북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웨일즈는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들이 있는 농촌이었다. 다양한 새소리들과 밤이면 들려오는 온갖 벌레들의 울음소리들, 맑은 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의 도약, 웨일즈는 너무도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특별히 우리 집은 와이강변에 위치한 라야더 성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시간이 생기면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아버지는 회중교회 소속 목사로 라야더교회를 시무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바르고 절제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외모도 항상 단정하고 소박했다. 또한 깔끔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사무적이고 냉철하게 대하셨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다정한 친구처럼 지내셨다. 아버지는 놀라운 열정을 가지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9년 동안 200명의 결신자를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또한 감사도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옷을 만들어주기를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셨다.

성공적인 목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웨일즈 지방의 애버가버니에서 5Km 정도 떨어진 산 속 마을 하노버교회로 목회지를 옮기셨다. 사실 이 때부터 우리 가정의 경제사정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난 사실 아버지가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았지만, 전부를 사회 사업에 기부하셨다. 당시 우리 집 형편으로는 전부를기부하는 것은 쉽지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셨다.

나는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으로 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생각치도 못하는 사고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른 아침에 어름같이 찬 강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짐승이나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며칠씩 같은 장소에서 떠나지않고 관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남인 나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다. 비록 장난꾸러기였지만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총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를 자기 목회의 후계자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

학창시절 나는 어학에 소질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것 같다. 14살이 되던 1853년, 나는 그 해 영국성공회에서 운영하던 크란도버리 학교에 입학하였다. 3년 동안 배운 과목들 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은 라틴어, 헬라어, 불어였다. 나는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해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확실히 난 그 때까지 내가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그리고 학교를 마칠 때쯤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15살이 되어서는 처음으로 하노버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본문으로 첫 설교를 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것은 내가 장래 교역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실 나는 이 때 이미 목회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목사이신 아버지의 기대도 있었지만, 나 역시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다. 1856년, 17살이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뉴 칼리지 신학 과정에 입학원서

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수회를 열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실패에 대한 첫 경험은 너무도 쓰라린 것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노력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부정해 버리시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위로는 바로 아내인 캐로라인 고드페리를 만난 것이었다. 절망과 함께 입학 허가를 기다리며 노댐프턴주의 운돌에서 사립학교 보조 교사를 하던 시절, 아내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그녀를 만난 후 내 마음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가슴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한번도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 실망은 위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1년의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학교로부터 9월에 있는 수강생시험에 응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합격도 하지 않았지만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기뻐 정신없이 춤을 추듯 내 마음도 주님의 축복을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런던으로 올라가 시험에 응시하였고 합격을 한 후 9월부터 임시로 수업을 받게 되었다. 이듬해 2월부터 정식으로 입학을 하여 수업을 받았다.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학비를 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40파운드의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전혀 학비 조달을 하실 수 없었고, 지방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약간씩 얻는 수입을 보태도 언제나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 결국 나는 하루 세 끼니를 두 끼니로 줄이기를 다반사로했다. 책도 살 수 없어 친구들에게 빌려야 했다. 점점 굶는 일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한계에 부딪쳤고, 결국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날이 많아졌다. 더 이상 학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고, 결국 휴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없도록 어렵게 만드시는 것일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엘리야에게 보내 주셨던 까마귀는 내게 날아들지 않았다. 나는 결국 대학에 입학한지 두 번째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휴학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위렉삼 근처에서 요양을 하면서 설교의 능력을 키울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준비의 시간과 같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다. 나는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을 하고 계셨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답을 주셨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았다. 학교에서는 나의 휴학을 다른 교파나 신학교로 옮기려는줄로 의심하였다. 결국 나는 해명서를 학교에 보냈고 그해 10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몸까지 아픈 나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학교였지만 학교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해는 결국 풀렸고, 중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땅을 향한 열정은 나를 더욱 채찍질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 글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순교자전기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부흥의 불길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민족화합 대성회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위원회가 주최하고 새생명 축제 위원회가 주관하며 총회사회복지위원회와 난지사랑회수도노회가 후원하는 '민족화합대성회'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4월 5일 오후 3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7천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성도들이 십자가모양으로 앉아있다.

김석균 전도사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를 1부에 드렸고 2부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동도교회 홍성개 목사,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서울중앙침례교회 오영택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세대별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연합과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김삼환 목사는 "오늘의 현실은 정치불신과 사회불안, 경제침체로 총체적 위기와 혼란에 처해있다"며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간절한 회개기도이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특별찬양으로 뮤지컬 "THE PROMISE"에서 예수역을 맡은 랜디 브룩스(Randy Brooks)의 남성 화음과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 브라스 앙상블의 연주는 이번 성회를 더욱 은혜롭게 하였다. 우리 교회 윤근창 장로의 헌금 기도가 있었고 오치용 담임 목사가 난지 선언서를 낭독했다. 안수집사회와 여전도 연합회의 자원 봉사와 100여명의 청년들과 다니엘 전도회원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색풍선과 포스트 잇등을 나눠주며 산돌중앙교회, 성도교회, 명성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내가 먼저 운동'에 행사참가자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도록 권유하였다. 어린이들에게는 색풍선을, 청장년 성도들에게는 포스트 잇을 나눠주어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내가 먼저 운동'과 더불어 왕십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5대사회경건운동'도 홍보하였다.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성도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앉아있다.

↑ 통성기도의 그 뜨거움이 어두운 사회의 변화와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지소서

↩↪ 참가자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 행사장주변에서 풍선과 포스트 잇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 '내가먼저운동'의 동참서명을 받는 봉사자들

↓ '내가먼저운동'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들

취재 장숙현기자

"한국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200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열린 2004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1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예년과 달리 화장한 날씨속에 7만여명(주최측 집계)의 성도들이 경기장을 가득 매운 채 축제로 드려졌다. 헵시바 찬양팀의 준비 찬양에 이어 시작된 제1부 '부흥 한국' 찬양 콘서트는 '부흥 한국'의 고형원 전도사, CCM 가수 하덕규집사의 특별찬양 및 랜디 브룩스(더 프로미스)의 축가가 울려퍼질 때 예배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등에서 참여한 5000여명의 연합찬양단은 김홍식 사랑의 교회 집사의 지휘로 '할렐루야'를 합창했고, 사랑의 교회 옥한흠원로목사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거부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하였다. 순서에도 없던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독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표 회장인 길자연 목사의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쳤다. 3부 구국기도회는 최근 민족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용조 목사, 오정현 목사등이 이 기도의 인도자로 나서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 열방의 부활'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석과 군인석등을 따로 마련하였으며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기독교TV등이 예배를 생중계하였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장애우들의 자리 안내, 헌금 위원 봉사와 교통 정리등을 통해 섬김의 도를 실천하였으며, 100여명의 청년들과 다니엘 전도회원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내가 먼저 운동'과 '5대 사회 경건 운동'을 홍보하였다. 준비해간 선물등이 불과 십여분만에 동이 나는등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참석자들 사이로 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참가자들

난지에클레시아 캐릭터

취재 장숙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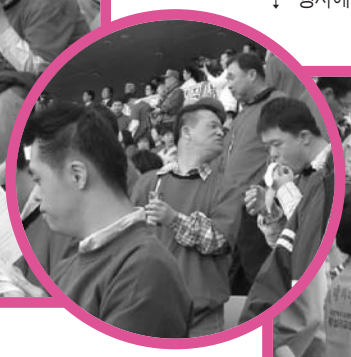
↓풍선을 준비하는 본교 자원봉사자

↑ '내가 먼저 운동' 설문에 표시하는 동참자

↑ '내가 먼저 운동' 피킷을 들고 동참을 호소

↓ 행사에 참석중인 장애우들의 모습

↓ 장애우를 자리로 안내하는 본교 자원봉사자



↑ 장애우들의 찬송모습

취재 장숙현기자

"사랑의 나라 왕십리가족의 날"

2004 전교인 체육대회

'A교구 김집사~', 'B교구 박집사~' 출석부르고 몸도 풀고..운동장에 모인 교우들

지난 5월 26일 새가족과 함께 하는 제 10회 2004년 전교인 체육대회가 광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00여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멋있게 장식된 만국기들의 환호 속에 교구별로 청, 적, 백, 황팀을 이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개회 예배와 100M 달리기, 2인 3각 반환점 돌아오기, 럭비공 굴리기, 새가족 달리기, 400M 계주, 피구, 발야구 등 다채로운 운동경기와 윷놀이, 고리 던지기, 투호 등 고전적인 개인 놀이, 팀별로 진행된 즉흥 응원전, 폐회 예배 그리고 경품 추첨 순으로 치뤄졌습니다. 올해 우승은 일치 단결과 젊음을 과시한 2교구로 돌아갔고, 응원전은 즉석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일사 분란하게 열띤 응원을 과시한 4교구에게 돌아갔다. 올해의 체육대회는 예년에 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부족함이 없이 치뤄졌으며,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각 교구에서의 많은 찬조가 돋보였다. 그러나 교구간의 우승에 대한 집착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단순한 체육 행사등은 아쉬움이 남는다.

교구의 성적 이판에 있소이다.

체육대회전 은혜의 말씀으로 몸과 정신을 준비시키고

드디어 폐회선언. 근디 뭔팀이 1등이여~

↑ 결승선을 향하여 쌩~쌩~

↓ 어느팀이 반칙할까나 매서운눈초리의 본부석

↑ 야잇~ 난 여자 김병현이당…… 자세좋고

↑ 전통 깨임인 토우 하는 모습 잘 맞추고 살짝.

↓ 날씬 빵빵 왕십리 치어리더들의 활기찬 응원.

↓ 왕 호나우드와 왕 지단의 볼트래핑 필승 왕십리

취재 장숙현기자

왕십리이모저모 / 화보로 보는 성동구청이전기념예배

신 청사강당에 모인 참석자들

기도하시는 담임목사님

찬양을 드리는 본교회 찬양단

신 청사강당에서 예배드리는 뒷모습

신 청사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앞모습

성동구의 복음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통성기도

■ 성동구청 이전 감사예배

· 일시 / 5월 28일(금) 저녁 7시 · 장소 / 성동구청 신 청사 강당(왕십리역 옆) · 주최 / 성동구 기독교연합회
· 본 교회 참가팀 / 시온찬양대(오케스트라), 샬롬 중창단, 경로가정대학 기악합주단, 초등부 난타 공연팀, 청년부 워십 공연팀

왕십리이모저모 / 화보로 보는 제 33회 수도노회 그리기대회

· 일시 / 5월 5일(수) · 장소 / 어린이대공원 · 주최 / 수도노회 · 본 교회 참가 / 약 40여명

{ 유치부 } · 우수상 / 차유현, 김예진, 최우빈, 임주희, 박다은, 박예진, 유해인 · 장려상 / 김다미, 김민재, 박종범, 최혜빈, 여재승, 조현욱
{ 유년부 } · 우수상 / 안보영, 홍은빈, 정윤아, 장수진, 김은지 · 장려상 / 차유빈, 조예빈, 이예빈
{ 초등부 } · 우수상 / 김영은 · 장려상 / 정승아, 오유리 · 모범상 / 김희진 (초등부)

선교편지 /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

영이 기뻐하는 집터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님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으로 현재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본 글은 본 교회의 선교게시판의 선교사편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 집을 놓기 위해 닦아 논 집터를 다시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어제 살펴 보았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서 입니다. 수도에 있는 SIM 본부에서 집을 만들고 그 집을 큰 트럭에 싣고 와 이 곳에 놓을 것인데, 이 집터 바로 옆, 서 너 발자국 거리에 무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굼즈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집 옆에 묻습니다. 땅을 살짝 판 후 시체를 놓고 흙으로 덮습니다.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그 위에 돌들을 얹어 놓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의 돌들을 가져가거나 헤쳐 놓아서는 안됩니다. 무덤을 소유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죽은 자가 가족의 신이 되어 그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가족에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돌들을 건드리면 적어도 소 한 마리는 무덤 주인에게 갚아야만 합니다.

새로 지을 선교 기지 곳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는 것은 전에 이 자리가 마을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을 놓을 터도 굼즈 사람의 집이 있었던 터인지라, 그 옆에 그 집에 살았던 누군가의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불가피한 경우 이장을 하긴 하지만 무척이나 꺼려하고, 더욱이 굼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장은 생각도 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장소는 존이 결정한 것입니다. 나무들이 다른 곳 보다 제법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 이 장소를 집터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터에 집을 세우게 되면 창 밖으로 가깝게 무덤이 항상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 때는 그 무덤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집터를 바라 보고 있는데, 아토 바야나가 다가 옵니다. 아토 바야나는 오로모 족속 교회 장로로 우리 일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에 말에 의하면 영이 기뻐하는, 터가 하나 있는데 보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터는 현재의 터보다 좀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그 곳에서는 멀리 산들이 바라다 보입니다. 그 산들 한 쪽에는 공산주의의 핍박 중에도 살아 남았던 오로모 교인들의 교회인 아디살렘 교회도 보입니다. 이 곳에 집을 지으면 아디살렘 교회 교인들도 선교사의 집을 멀리서 보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사와 교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세히 보니 경치도 좋고 좀더 높은 곳이라 바람도 잘 부는 것 같습니다. 집터로서는 이 곳이 무덤 옆 보다는 아무렴 낳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집터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영이 기뻐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신현덕 (청년부)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님의 일생과 고난을 그린 영화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개봉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여러가지면에서 이전의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해 주는 영화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집요할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장점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느끼며 스스로를 돌아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 역시 이 영화가 지닌 미덕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한 구석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찜찜함은 무엇이었을까?

영화는 관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다. 하지만 관객은 그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 나름대로의 감정의 파동을 겪는다. 그 감정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며 먼저 느낀 감정은 슬픔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굴레를 지니고 있는 예수.

그 인간 예수의 고뇌와 두려움, 마음의 고통이 전해져 왔다. 그 분이 인간으로서 견디지 못 할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나 역시 그 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로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이내 그 분을 못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에게로 향했다.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모략으로 함정에 빠뜨리며 정치적인 술수로 그 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울컥 치밀어 오른 감정은 바로 분노였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다른 희생양을 찾는다. 나의 죄를 발견하기 이전에 다른 죄인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 한가지 영화에 몰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다면 바로 마리아의 부각과 사단의 의인화이다. 영화에서는 은연중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분에게 힘을 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영화 중의 한 장면을 돌이켜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길 양 옆에는 많은 군중이 몰려 그 분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 쪽에는 검은 두건을 쓴 사단이 차가운 눈초리로 그 분을 노려본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마리아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분의 길을 따르며 걷고 있다.

사단과 마리아의 대립 구조이다. 은연중 마리아가 사단의 권세와 맞서며 그 분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인 것이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개신교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요

소가 아닐 수 없다.

이 영화에서 사단과 악령의 존재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제작자 고유의 창작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런 시도는 자칫 영화를 유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이 영화의 잔혹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영화가 만약 예수님의 고난을 그린 영화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엽기 잔혹극으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 영화처럼 한 인간에 대해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 영화는 아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마음 속 깊이 느끼며 그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게 한다는 취지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고난 자체를 부각시킨 나머지 그 필연적인 고난의 이유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할만 하다.

비신자들에 대한 불친절함도 마음에 걸린다. 예수님의 고난 중간중간 과거 회상 장면이 오버랩된다.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알아볼 장면들이다. 하지만 성경이야기에 지식이 없는 비신자들에게는 전혀 개연성 없는 장면, 이야기의 맥을 끊는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기자의 영화평처럼 "그들(기독교인들)만의 영화"라는 표현이 나오게 한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이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영화로 추천하고 있다. 나 역시 꼭 한번 볼 만한 영화라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하나의 문화상품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신앙과 결부시켜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거나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로 모는 것은 영화 자체를 신앙의 영역으로 절대화 시키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화이기에 다양한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다. 비록 신앙의 영역을 건드린 영화지만

신앙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의 필요성

▶ 치면세균막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플라그(plaque)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플라그를 우리말로 치면세균막이라고 합니다. 치면세균막은 구강내 세균과 그 세균의 부산물(독소) 및 음식찌꺼기로 이루어진 끈적끈적한 막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이러한 치면세균막이 치아와 잇몸주위의 표면에 생기게 되죠. 식후 바로 휴지나 손톱으로 치아면을 긁어보면 묻어나오는 소위 이빨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치면세균막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 대표적인 두 가지의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충치)과 잇몸병(풍치)이 생기게 됩니다. 칫솔질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치면세균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치면세균막은 오랫동안 구강내에 남아있게 되면 침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무기물 성분과 결합되어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집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게 된 것을 치석(dental calculus)이라고 합니다. 치석은 딱딱한 세균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는 잇몸과 치아표면 사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인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석은 잇몸뼈(치조골)를 녹이고 점점 더 커집니다. 또한 치석은 치면세균막의 생성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세균이 서식할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은 무엇인가요?

치석은 치면세균막과는 달리 치솔질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워낙 돌처럼 단단하기 때문이죠. 실험에 의하면 붙어있는 힘이 60kg의 장정이 매달려 있는 힘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석은 반드시 치과에 있는 장비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치석제거술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종종 환자분들 중에 물을 이용한 고압분사장치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치석제거술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너무 자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평소에는 열심히 치솔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솔질을 잘 하시는 분이라도 100% 치면세균막을 제거할 수는 없죠. 따라서 치석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년에 1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물론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으로 인한 잇몸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없이 진행되니까요.

가 / 정 / 예 / 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가 정 예 배 첫째 주간

행복한 가정

성경 / 에베소서 5:22-33 · 찬송 / 27장, 28장

성 경 말 씀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을 때, 인간은 행복했습니다(창2:23).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즐거워야 한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의 미소에 비례합니다.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만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는 기쁨을 드리라고 교훈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5).

둘째, 남편이 인정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엡 5:23) 말씀합니다. 범사에 남편을 믿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24)고 권면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벧전 3:6).

셋째, 아내는 사랑받아야 한다

하와를 본 아담은 너무 좋아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창2:23)이라고 기쁨의 환호성으로 노래합니다. 아내는 남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가 보호받아야 한다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과잉보호와 과잉기대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동 학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시127:3). 참된 자녀 보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엡 6:4)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가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가 즐겁고, 남편이 인정받으며,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자녀가 보호받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하며, 세계 평화가 옵니다.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 가정이 보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 가정에서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다 많은 교제를 이룹시다.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가 정 예 배 둘째 주간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

성경 / 사도행전 10:1-8 · 찬송 / 35장, 36장

호레이스 부쉬넬은, "가정과 신앙은 같은 말이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고 함으로 가정 신앙을 강조하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좋은 것 중에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분이 가정의 가장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삶을 그 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마주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예배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유익합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 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는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누어준 냉수 한 컵도 잊지 않으시마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함께 나누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찬양과 예배는 기독교 가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성 경 말 씀

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대 화 하 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의 모범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2. 가정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시작해 봅시다.
3. 오늘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가 정 예 배 셋째 주간

복받는 가정

성경 / 시편 128:1-6 · 찬송 / 49장, 50장

성 경 말 씀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첫째, 복된 가정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 주기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둘째, 복된 가정은...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헌신적인 자세로 도와야 합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기도는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의 순종은 가정으로 웃음을 피우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공부는 좀 못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셋째, 자자손손... 대(代)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손만대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키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손에 손을 잡고 성전을 향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은 이미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아무런 노력없이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없이 거저 주셨는데,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 합니다. 그러나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보너스로 은혜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혹시 가족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해 봅시다.
2.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기뻐하실만한가 살펴 봅시다.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주소서

가 정 예 배 넷째 주간

경건훈련으로 믿음을 지켜라

성경 / 디모데전서 4:1-8 · 찬송 / 857장 868장

첫째,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6절)

6절을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중요한 이단들이 무엇입니까? ①극단적 율법주의(바리새인)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②극단적 자유주의(사두개인)는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만 생각합니다. ③지나친 금욕주의(현실 도피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과 영의 세계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이단을 이기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경건을 연습하라 (6-7절)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훈련입니다.(마 11:28-30) 멍에란? 두 마리의 소가 등에 함께 메고 가는 연결 고리입니다. 쉽게 이해시킨다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물건을 들면 어른의 힘으로 갑니다. 아이는 따라 가기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훈련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셋째, 범사에 유익한 경건 훈련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경건훈련을 일석삼조입니다. 새벽기도를 하면, 이웃을 섬기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넷째, 경건훈련은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면 "나 교회 나가는 것을 당분간 쉬겠다"고 합니다. 학교에는 방학이 있어도 신앙에는 방학없습니다. 방학을 하면 미귀가 틈탑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 경 말 씀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대 화 하 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우리의 신앙을 더욱 뜨겁게 만들만한 경건의 습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 가정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을 있다면 서로 나누고 고치도록 합시다.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마무리 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 자 : 유진 피터슨
출판사 : 쉴만한 물가
가 격 : 8,900원

이 책의 원제는 "as First and Second Samuel by Eugene H. Peterson(유진 피터슨의 탁월한 사무엘서 해석)"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신학을 바탕으로 사무엘서를 강해한 내용이다.
사무엘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는 사무엘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사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가하면 주로 본서의 초점인 다윗의 인생에 집중되어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나,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을 조명하면서 한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로 세워진 사람, 그리고 이 견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준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뿌리박은 참된 리더십과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란노선정 워쉽시리즈

워 쉽 클 래 식 I, II, III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배음악일 것이다.
80년대부터 가스펠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였고, 90년대부터는 신곡, 구곡, 국내곡, 외국곡 가릴 것 없이 '마음에 와닫는 가사'와 '새로운 감각의 멜로디'로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우리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로 그 곡들 중 많은 사람이 즐겨 듣고, 따라 부르던 찬양을 4부화음을 넣고 성가곡적인 느낌으로 편곡을 하여서 '가스펠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기존의 '가스펠 예찬론자' 또한 새로운 느낌으로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곡들이라 생각되어진다.
현재 3번째 앨범까지 나왔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더 제작되리라 예상된다.

가 수 : 두란노 경배와 찬양
가 격 : 10,000원
기획사 : 두란노 뮤직

FOOD

오렌지 닭튀김

1 닭고기는 지방을 제거하고 양념장에 넣어 약불에서 8분 정도 끓인다.

2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은 다음 넉넉한 기름에 튀긴다.

닭안심은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워 볶음이나 구이에 좋습니다.
중간에 하얀 심줄이 박혀 있어 잡아 당겨 빼 낸 후 요리해야 합니다.

• 필요한 재료

주재료 : 닭안심 200g, 감자칩 10장, 오렌지 1개

양념장 : 물 $\frac{1}{2}$컵, 간장 $\frac{1}{4}$컵, 물엿 $1\frac{1}{2}$큰술, 후춧가루 $\frac{1}{3}$작은술, 오렌지껍질 $\frac{1}{2}$개, 마늘 2쪽, 생강(마늘 크기) 1쪽

소 스 : 고춧가루 $\frac{1}{2}$작은술 , 설탕 1작은술, 물엿 1작은술, 물 2작은술, 타바스코 소스 2작은술, 간장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1. 양념장 재료의 오렌지 껍질, 생강, 마늘은 채 썰어 다른 재료와 섞는다.
2. 닭고기는 지방을 제거하고 ①의 양념장에 넣어 약불에서 8분 정도 끓인다. 불을 끄고 실온에 30분 정도 둔다.
3. 닭고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은 다음 넉넉한 기름에 튀긴다.
4. 오렌지는 속껍질을 벗겨 준비한다.
5. 소스 재료를 섞어 둔다.
6. 그릇에 감자칩, 튀긴 닭고기, 오렌지를 잘 섞어 담고 소스를 뿌린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0시 30분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오전 9시
  유년부 · 초등부 2부 오전 11시 30분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년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1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발 행 인 : 오치용 목사 주 필 : 김재영 장로 편 집 : 출판 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 행 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http://www.wpc.or.kr ☎ 교회 : 2299-1011 출판실 : 2295-0114 FAX / 2292-0309

만든이들 / 간사 : 이승민 강도사 주간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장숙현집사, 배승원, 홍지혜, 이수정, 임현석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사진 : 차주영